

SUNY Stony Brook University

교환학생 수기

최린

2021 년 가을학기 파견
지질환경과학과 19 학번
lynnchoi0126@o.cnu.ac.kr

목차

1. 학교 개요 -----	2
2. 기숙사 -----	2
3. 수강신청 -----	4
4. 생활 -----	5
5. 학교 시설 -----	7
6. 학교 활동, 동아리 -----	9
7. 준비하기 -----	10
8. 여행 -----	10
[부록] 스토니브룩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 --	12

1. 학교 개요

- 위치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뉴욕 주 롱아일랜드 스톤이브룩에 위치해있다. 캠퍼스 내 위치한 기차역에서 LIRR 기차를 타면 뉴욕 시티(맨해튼 Penn Station)까지 1 시간 40 분 정도 걸린다. 휴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뉴욕 시를 당일치기로, 자주 여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뉴욕 시티에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해 보스톤,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동부 다른 도시들로 여행도 가능하다. 한편 뉴욕 시 가까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비싼 편이라고 들었다.

- 구성원, 분위기

현지 학생들의 경우 뉴욕 시 근처와 뉴욕 주 내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인구 구성도 매우 다양한 편이고, 특히 아시아 계 학생들이 매우 많다. 2021 년 2 학기 기준,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만 20 명 즈음에다 SUNY Korea 캠퍼스에서 오는 학생들도 100 명 정도 있을 만큼 한국인도 매우 많은 편이다. 캠퍼스를 걸어다니다보면 한국어와 중국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아시안으로서 따가운 시선을 느끼게 된다거나 은근한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외국인이라서 외롭거나 한국어와 한국 친구들이 그리운 것도 조금 덜하다. 현지 학생들도 한국인, 한국 문화, 한국 음식 등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장점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며 지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 한국인을 애써서 피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주칠 수 밖에 없고, 아무래도 한국인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보다 가까워지기 쉽다 보니, 완전히 낯선 곳에서 영어만 쓰며 생활해보고 싶다면 스톤이브룩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다른 학교의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좋았고, 다양한 인종이 가진 다양한 경험들을 보고 들으면서 미국 안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좋은 경험이었다.

- 유명 학과

스토니브룩 대학은 이공계 학과들이 유명하다고 들었다. 특히 생물학 쪽이 유명해서 생물학과 생화학(Biochemistry) 학생들이 정말 많고 의과대학도 유명해서 pre-med, pre-vet 학생들도 많으며, 그 외에도 computer science, psychology, applied math, 공학 계열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2. 기숙사

- 기숙사 건물

교환학생들은 west apartments 에 살게 되는데, 아파트 형식으로 suite 마다 거실과 부엌, 화장실 두 개가 있고 거실과 각 방에 에어컨이 있는 형태의 기숙사이다. 현지 학생들의 경우 3,4 학년이 거주한다. 기숙사를 신청할 때 싱글룸(1 인 방)과 더블룸(2 인 방) 중 선택할 수 있다. 필자는 싱글룸을 선택했고 G 동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인 현지 학생 3 명과 영국인 교환학생 1 명과 함께 suite 을 공유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미 서로 친구인 현지 학생들 + 한 두 명의 교환 학생이 suite 을 함께 사용하는 것 같다. 더블룸을 사용하는 교환학생 친구들을 살펴봤을 때 더블룸에는 교환학생 두 명을 한 방에 배정해주는 듯 했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한국인 둘이서 룸메이트인 경우가 2명, 한국인과 중국인이 룸메이트인 경우가 한 명 있었다. 더블룸에 사는 친구들은 룸메이트와 친해지기가 쉽고,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주방기구/헤어 드라이어 등을 췌어하고 음식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다. 하지만 싱글룸을 사용하더라도 suitemate 들의 성향에 따라 suitemate 들과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West Apartments 중 A, B, C, D 동은 더블룸이 있고 E, F, G, H, I, J, K 동은 싱글룸으로만 구성된 suite 들이다. 학교 셔틀 버스 정류장은 C 동 앞 / E 동 앞 / G 동 앞에 있고, 자전거 정류소는 C 동 뒤, I 동 앞에 있다. J, K 동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서 넓고 깨끗한 건물인 듯 하다.

- Meal Plan

West apartment 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는 굳이 입사 전에 밀플랜을 신청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밀플랜이 싸지도 않은데다, suite 안에 부엌도 있으니, 미국에 도착해서 살펴본 후에 필요하다면 추가하기를 권한다. Unlimited 플랜을 하면 뷔페식인 West side dining 과 east side dining 을 제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이닝홀 까지 매 끼 식사를 하러 나가야 하고 (g 동에서 웨스트 다이닝까지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다이닝 메뉴가 크게 바뀌지 않아서 지겨워 질 수 있다. 필자가 알기로 밀플랜은 downgrade 는 불가능하지만 upgrade 는 가능하니, 미리 비싼 밀플랜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서 요리를 할 생각이 절대 없다는 게 아니라면, 언리미트 플랜보다는 학교 곳곳 식당과 매점들에서 쓸 수 있는 Dining Dollar 를 충전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다이닝 달러의 경우 개강 이후에도 최소 \$20 부터 앱을 통해서 충전해 쓸 수 있으니 꼭 기숙사 신청 시에 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도 밀플랜 없이 입사해서 대부분의 끼니를 직접 요리해 먹었고, 필요할 때마다 다이닝 달러를 충전해서 썼다. 다이닝달러의 경우 교내 대부분의 식당 및 푸드트럭에서 세금 10% 이 면제되기 때문에, East/West Dining 이나 다른 교내 식당을 이용할 때는 충전에서 쓰는 게 좋다.

- 커먼즈

E 동 1 층에는 Commons 라는 공간이 있는데, 처음 기숙사에 입사할 때 체크인하는 곳이 이곳이다. E 동 입구와 별도의 입구를 가지고 있고 커다란 앞문은 카드키 없이, G, F 동 쪽 정원으로 이어지는 뒷문은 카드키를 찍어서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커먼즈에는 열쇠를 놓고 나왔을 때 또는 청소기나 카트 등의 물품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West Apartment 사무실과, 작은 헬스장, 컴퓨터실, 프린터, 정수기, 화장실, 자판기가 있다.

- 메일룸

West apartments 거주 학생들의 경우 Wagner 메일룸을 이용하게 된다. 웨스트 아파트먼트에서 웨스트사이드 다이닝으로 가는 길 중간, wagner 라는 건물 1 층에 위치해있다. 450 Circle Rd, West Apartments 동 호수, Stony Brook, NY 11790 으로 주문하면 wagner 메일룸으로 배달을 해주는데, 메일룸에서 처리가 되면 본인의 스톤브룩 이메일(@stonybrook.edu)로 메일이 온다. 메일에 있는 바코드와 학생증을 가지고 가서 수령하면 된다.

3. 수강신청

- 건물 거리

스토니브룩은 south campus 와 life science 건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건물이 academic mall 근처에 모여있는 형태의 캠퍼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물은 걸어서 최대 10-15 분 거리 안에 위치해 있다.

- 리서치 프로그램

필자는 GEO467 Senior Research of Geology 수업을 수강했는데,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1 학점짜리 프로젝트 수업이었다. 필자의 경우 스토니브룩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같은 과 선배가 있어 그 선배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다. 학기 전이나 학기 초에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 교수님께 연락해서 승인을 받은 뒤 학과 사무실에 이메일을 보내고, 학과 사무실에이 SOLAR 에서 승인을 해주면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프로젝트에 얼마나 시간을 쏟고 싶은가에 따라 1 학점 혹은 3 학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아무 부담없이 하고 싶다면 학점을 받지 않고 리서치를 할 수도 있다고 들었다. 필자가 있었던 실험실의 경우 한국에서의 실험실과 다르게 출퇴근 시간이나 실험실 출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실험실에 나가지 않고 진행해도 괜찮은 듯 하다. 처음엔 필자도 연구 프로젝트까지 하면 너무 바빠질까봐 고민이 많았는데, 하고 나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되어서 추천한다! 연구하면서 배우는 것들 뿐 아니라 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과 실험실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 담당 교수님께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천서도 써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꼭 리서치 수업이 아니더라도 스토니에는 학부생이 리서치를 경험할 기회가 많고, 학부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서치에 관심이 있으면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보길 강력 추천한다.

- 수강 변경/철회기간

수강신청이 열리는 시간은 매우 이르지만, 선수과목을 인정받고 수강신청 승인을 받는 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수강신청 기간이 길어져서 개강 직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학기 시작 후에도 수강신청이 일정 기간동안 가능해서 그 기간동안 시간표를 갈아엎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Waitlist 에 들어있는 상태라도 이 기간동안 수강신청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첫 수업에 찾아가서 담당교수에게 waitlist 에 있는데 수강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름을 올려주는 것 같았다. 수강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관심이 있는 수업이면 그냥 찾아가서 OT 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필자도 개강 전까지는 syllabus 를 볼 수 없고 교수님들이 어떤 분인지 알기가 어려우니 걱정이 많았는데, OT 수업에 가서 syllabus 를 확인하고 교수님 성향이나 발음도 확인하면서 들을 만한 수업인지 판단했다.

- 기타 팁

같은 번호대 수업들을 들으면 해당 학년의 전공 친구들을 많이 마주쳐서 친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필자는 100 번대 하나, 300 번대 하나의 전공수업과 다른 분야의 일선수업들을 수강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공감대도 없고 마주칠 일도 적었다.

하지만 수강하는 수업의 성격을 차치하고라도 수업에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 같기는 하다.

- GEO105 Energy Resources of 21st C (J. Parise): GEO 수업이지만 전공 학생들보다는 타전공 학생들이 듣는 교양 느낌의 수업이다. 수업은 거의 교수님이 ppt 를 읽는 형태로 진행되고, 수업 전 또는 후에 깜짝퀴즈가 종종 열린다. 시험은 세 번, 객관식 문제를 OMR 에 마크하는 형식이고, 세 번 중에 높은 점수 두 개로 성적을 산출한다. 학기말에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제도 하나 있다. 퀴즈가 많고 시험도 객관식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에 좋은 과목이다. 단점은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다는 것과, 깜짝 퀴즈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빠질 수 없다는 점.
- GEO 305 Field Geology (D. Davis): 말 그대로 학교 주변에서 하는 지질실습 수업이다. GEO 나 Earth Science 전공생들이 주로 듣는 수업이고, 수업 규모는 크지 않다. 캠퍼스 내 숲에서 땅을 파는 프로젝트를 포함해 여러가지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업시간에 지질학과 연구실 중 몇몇의 투어를 제공해줘서 재밌는 수업이었다. 실습을 하나 할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중간고사/기말고사는 치르지 않는다.
- THR101 Intro to Theatre Arts (N. Mangano): 공연예술 이론에 관한 수업이다. 교수님이 수업 중 전자기기(태블릿 포함)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신다. 거의 매주 reading 과제와 review question 이 있는데, 필수는 아니지만 한 번은 그와 관련 깜짝 퀴즈를 출제한 적이 있다. 5 편의 연극작품 또는 작품의 일부를 읽고 퀴즈를 풀어야 한다. 퀴즈 스케줄은 미리 공지한다. 시험 형식의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는 교수가 지정해주는 팀 별로 5분 길이의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았지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갈 때 떠올릴 수 있는 잡지식들을 조금 얻을 수 있다.
- WST102 Intro to Women and Gender Studies (H. Girdap): 매주 어려운 읽기과제가 있다. 자료를 읽고 과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수업은 주로 읽기자료 정리와 그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된다. 중간고사 시험이 있고 기말고사는 에세이(책/영화 등과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연관시켜 작성)와 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체한다. 토론이 많아서 현지 학생들과 경험 및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과제가 많고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배운 것도 많지 않았다고 느껴서 크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 MUS271 Stonybrook Chorale (S.Hershkowitz): 일주일에 한번 두시간동안 합창을 하는 수업이고, 학기 말에 교내 Staller Center 에서 공연을 올린다. 생각보다 친구를 사귄만한 수업은 아니지만, 재미로 듣기에 괜찮다.

4. 생활

- LIRR station 근처 식당

China station: 마라샹궈, 만두류 맛있음.

Kungfu Tea: 버블티. 교내 차타임보다 조금 싸고 맛있음.

1089 Noodle House: 완탕, 팟타이, 오렌지치킨, 볶음밥 추천

- 교내 식당

dining dollar 와 wolfie wallet 으로 세금 과세 없이 이용 가능

* <https://stonybrook.nutrislice.com/menu> 에서 일부 메뉴 확인 가능*

- 웨스트 사이드 다이닝: 뷔페형, 아시안 음식 있음, 와플 만들어 먹을 수 있음, 피자 맛있음, 아이스크림 기계 있음, late night meal 로 나오는 치즈스틱 맛있음
- 이스트 사이드 다이닝: 푸드코트 주문형 & 뷔페, 마켓.
- Roth Cafe: 푸드코트형, 써브웨이, 스타벅스 등 있음
- Jasmine: 한식, 일식, 중식 등을 파는 푸드코트형 아시아 음식점 & 아시안 스낵을 파는 마켓 & 버블티 가게. 한식 중에는 닭강정과 제육볶음, 떡갈비가 괜찮고 국물 류는 별로라는 평을 많이 들었다. 버블티 카페는 타피오카가 조금 딱딱하지만 티가 진하고 맛있으며, 차타임과 쿵푸티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dining dollar 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Peet's Coffee: Wagner 옆 빨간색 건물(Debris Center) 1 층에 위치. 커피가 괜찮고 스무디, 베이글, 디저트류 등도 판다.
- SAC: 마켓 (샌드위치, 만두, 스시롤 등 식사류도 판매), 샐러드(craft), Argo tea, 푸드코트.
 - Argo Tea: 패스츄리류 맛있음(크로아상, raspberry tunnel). 버블티는 코코젤리처럼 쫀득한 젤리가 들어있음. green tea raspberry bubble tea 추천.
 - 푸드코트: 마켓을 통과해 안쪽으로 쪽 들어가야함. Stir-fry 볶음밥 데리야끼 소스에 해달라고 하면 맛있음.
- **교내 푸드트럭** : 차타임(union 앞, 버블티), 엔칠라다(SAC Circle), 스무디(SAC Circle), 피자(Chem building 뒤편)
- **쇼핑루트**: 일요일 운행. 월마트 - 타겟 - 스타앤샵 정차. West Apt 버스 정류장에서 Shopping Route West 탑승.
 - 타겟: 홈플러스스 느낌, 웬만한 것 다 있음, 가격 적당.
 - 스타앤샵: 타겟과 비슷하지만 조금 작은 규모. Van leeuwen 아이스크림이 타겟보다 짬
 - 월마트: 신선식품(채소, 과일 등) 없음. 과자, 캔디 등이 짬 편. 신라면 / 동아시아식 쌀 / 일본 즉석 라면 등 있고 가격이 짬. 월마트 근처에 liquor 샵과 joann(패브릭 샵), 달러 트리 등도 있음.
- **Smith Haven Mall**: 각종 의류 매장과 AT&T(통신사), 트레이더 조(자체브랜드 식료품점, 질 좋은 신선식품 & 냉동식품 등), Macy's 등이 모여있는 쇼핑몰. Roosevelt Dr. 에서 S60, 혹은 H Quad 에서 3D 버스 탑승. 종점에서 내리면 실내 몰과 Aldi(과일, 채소, 고기 등이 매우 저렴한 식료품가게) 를 갈 수 있음. 종점 하나 전에서 내리면 AT&T, 트레이더 조, 웨이크헵, 치폴레, whole food market (고급 유기농 식료품점) 등을 갈 수 있음. 종점 하나 전에서 걸어서 10 분 정도 거리에 AMC 영화관과 Marshall, Burlington (떨이 제품 싸게 파는 곳) 등이 있다.

- **Port Jefferson:** 학기 중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운행하는 PJ-SBU shuttle (instagram @pjsbushuttle) 이나 S60 버스, LIRR 등을 타고 갈 수 있는 근처 항구 마을. 레스토랑이 많고 바다도 있어서 소소하게 나들이 가는 기분을 낼 수 있다. Slurp ramen, Sweet & Savory (crape 가게) 가게가 유명, 그 외에도 굴 요리 등의 레스토랑 있음.
- **아마존 프라임:**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아마존에 가입하면 아마존 프라임 스튜던트를 6개월간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마존 프라임을 이용하면 홀푸드 마켓에서 배송을 시킬 수 있다. 6개월 뒤 직접 해지해야 한다.
- **통신사:** 필자의 경우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Mint Mobile 칩으로 3개월, AT&T Prepaid Sim 으로 2개월 사용했다. 민트 모바일은 학교 주변 및 뉴욕 시내 등지에서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 사용 방법은 요금을 선불로 결제한 후 사용을 시작할 때 민트모바일 앱에서 Activate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필자는 한국 통신사에서 하루만 로밍을 해둔 후에, 미국에 도착해서 민트모바일을 결제하고 유심을 갈아 끼웠다. 다만 민트모바일은 처음 결제할 때만 할인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필자의 경우 처음 3개월을 할인가로 결제했다가, 다음 결제는 AT&T 와 가격차이가 크게 없어서 AT&T 로 통신사를 변경했다. AT&T 의 경우 미국 운전면허나 social number 가 없다면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서 해야한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 Smithhaven 몰 내부에 있는 AT&T 는 prepaid Sim 을 취급하지 않았고 웨이크섹 옆의 AT&T 에서 유심을 구매했다. 해지할 때는 AT&T prepaid 홈페이지에서 autopay 만 해제하면 된다.
- **은행:** 필자는 AMC Theatre 옆에 있는 chase bank 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은행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고 가야하고, 예약 없이 찾아가는 경우 남아있는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날에 새로 예약을 잡아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은행에 갈 때는 DS-2019 와 여권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chasebank 는 평일에 캠퍼스 밖으로 나가서 개설해야 하고 교내에 ATM도 없으며, 만 25세가 지나면 계좌 유지비를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교내(SAC 지하)에도 island federal 이라는 작은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의 경우 계좌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교내에 atm 이 많으니 이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롱아일랜드 밖에는 atm 이 거의 없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계좌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교환학생 기간이 끝난 후에도 달러통장과 카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다.

5. 학교 시설 및 서비스

- **Recreation Center:** 헬스기구, 실내 육상 트랙, 배드민턴 장, 실내 배구/농구 코트 등이 있다. 실내 코트에서는 농구공도 빌릴 수 있다. Rec On The Go 앱에 로그인해서 입장 바코드를 받을 수 있고, 렉 센터에서 진행되는 요가/스피닝/댄스 등의 수업도 신청할 수 있다. 수업도 모두 무료다.

- **수영장:** 렉 센터 건너편 건물에 위치해있다. 렉 센터를 등지고 건너편 건물 오른쪽에 보이는 은색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 학생증만 긁으면 무료이다. 코로나로 인해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깊은 편 쪽 계단 위 문으로 나가면 있는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면 된다. 실내 수영복이 아니어도 비키니나 래쉬가드, 스포츠 브라 등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착용하면 된다고 한다. 일반 학생들에게 개방되는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가야한다.
(<https://www.stonybrook.edu/commcms/studentaffairs/rec/home/operation-hours.php>)
- **프린트:** 교내에는 Melville Library North Reading Room, West Apartments E commons 등 곳곳에 프린터가 있다. 프린트는 유료인데, 모든 학생들이 매 학기 일정 금액의 print quota 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무료나 다름없다. Print Quota 는 생각보다 충분해서, 태블릿 없이 대부분의 수업 자료를 프린트했던 나도 꽤나 많이 남기고 돌아왔다. 프린터 사용 방법은 print.stonybrook.edu 에 프린트하고 싶은 문서자료를 업로드 한 뒤, 프린터 옆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학생증 카드를 긁고 출력 버튼을 누르면 된다.
- **SHS(각종 백신, 상담):** 교내에는 Student Health Service 라는 보건소 정도의 작은 병원이 있다. H quad 와 Lavallie stadium 사이에 작은 건물로 따로 위치해있다. 2021 년 가을에는 1 층 공사로 인해 Student Health Portal 이나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야하는 시스템이었다. 산부인과, 내과 등 간단한 검진을 해주고 약도 보험 커버로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여행 전 경구형 피임약을 무료(보험 커버)로 처방받았었고, 감기와 위염 증상이 있을 때도 찾았는데 이 때는 목캔디와 액체형 종합 소화제를 받았다. 따라서 급할 때 먹을 만큼의 약은 챙겨가되 너무 많은 양의 비상약을 챙겨갈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SHS 에서 무료로 처방받으면 된다. SHS 에서 독감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고, 필자는 맞지 않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아직 맞지 않았다면 알아보길 추천한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 학기 초와 말에 두 번의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한국에서 마지막 3 차를 맞으면 접종이 완료된다고 한다. 더불어서 SHS 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면 알아보길 추천한다.
- **CPO(Center of Prevention and Outreach):** 유니온 빌딩 1 층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위생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ttps://www.stonybrook.edu/commcms/studentaffairs/cpo/> 에서 Request free health product 에 들어가 신청하면 생리대, 콘돔, 밴드, 알콜 스왑, 목건강 키트(티, 스틱 꿀) 등을 받을 수 있다.
- **Food Pantry:** union 빌딩 지하에 위치한 food pantry 에 가서 QR 코드를 스캔하고 구글 폼으로 필요한 것들을 신청하면 파스타 소스, 파스타 면, 그래놀라 바, 통조림, 맥앤치즈 등 다양한 저장식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교내 운동경기:** <https://stonybrookathletics.com/> 스토니브룩대학 스포츠 팀들이 하는 다양한 운동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Staller Center:** Music 건물 건너편에 위치한 Staller Center에서는 쇼나 공연 등이 간간히 열린다. 스토니 브룩 학생이라면 박스오피스에서 티켓을 무료로 혹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보러가기를 추천한다. 학기 말에는 각종 음악 수업의 기말 공연도 이곳에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인공인 다양한 음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 **셔틀버스:** West Apartment 를 지나는 버스는 Outer Loop 과 Inner Loop 두 가지다. 기숙사에서 SAC 으로 갈 때는 두 버스의 경로가 같지만, 반대로 기숙사로 돌아갈 때는 outer loop 을 타면 캠퍼스를 한바퀴 크게 돌아야 하므로 inner loop 을 타는 게 빠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걷는 것과 시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비가 오거나 걷기 귀찮을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South Campus 와 south parking lot 으로 갈 때는 Express 와 Hospital/Chapin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Express 는 SAC loop 안쪽의 engineering loop 에서 타면 되고, H/C 는 SAC 이나 Roosevelt Dr. 에서 타면 된다.
- **자전거:** 버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무료로 대여해서 캠퍼스 내에서 탈 수 있다. 다만 1 시간만 무료이기 때문에 1 시간이 지나기 전에 교내의 아무 자전거 스테이션에 반납해야한다. 자전거 스테이션은 West Apartment I 앞, West Apartment D 뒤편, SAC loop, Shop Red West 옆, LIRR 스테이션 앞, LIRR 에서 stadium 쪽으로 가는 길, South Parking lot 등 여러 곳에 위치해있다. 대여를 할 때는 화면의 파란색 ride 버튼을 누르고 학생증을 긁은 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코드가 나오는데, 그 코드를 자전거 거치대 옆에 있는 버튼에 입력하고 자전거를 꺼내면 된다. 반납 할 때는 자전거를 거치대에 세게 밀어넣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끝이다.
- **피아노 연습실:** Music Department 건물 1 층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 연습실이 두 개 있다. 문 앞에 붙어있는 시간표에 이름을 쓰기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연습실 안에 의자와 보편대도 있다. Tabler 에도 피아노 연습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필자는 써보지 않았다.
- **HBO Max:** 기숙사 거주자라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리포터와 프렌즈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s://it.stonybrook.edu/services/hbo-max>

6. 학교 활동, 동아리

- **Corq 앱:** 각종 학교 이벤트를 확인하고 event pass 를 받을 수 있는 앱. USC(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이벤트와 동아리들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고 RSVP(참석 여부 확인)를 할 수 있다. USC 이벤트의 경우 필요한 event pass QR 바코드도 이 앱에서 받을 수 있다.

- 동아리: SBU Engaged 웹사이트나 학기 초에 하는 club fair 에서 살펴보고 바로 동아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Club fair 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이메일이나 SNS, 또는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하거나 클럽 모임이 있는 날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듯 하다. 또는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fund raising 등에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다. 필자는 Women's soccer club 과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English pal 세 개의 동아리에 가입했다.

- English pal: 현지 학생과 국제학생을 매칭해주는 동아리. 학기 초 일정 기간동안 신청을 받는다. 어떤 친구와 매칭되느냐에 따라 참여도가 많이 달라지는 듯 하다. 필자의 경우 Pal 과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해서 사실상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 Women's soccer club: 운동하는 건 재밌었지만 친구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다.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많아서 수준은 높은 편. 일주일에 두 번 South Parking Lot 에서 연습이 있었고 축구화와 운동복은 개인이 구비해야 한다.
-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기독교 동아리.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늦게 가입했다. 먼저 다가와서 인사해주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시간이 많아서 현지 학생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뮤지컬 공연 동아리와 럭비 클럽, 댄스 클럽, 합창단, 학보사 등에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은 참여하기도 했다.

7. 출국준비하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챙겨가면 좋을 것과 안 챙겨가도 괜찮은 것들을 정리해보았다.

- 챙겨올 것: 주방가위, 식칼, 락앤락/비닐백, 거울/빗, 젓가락, 육수 가루, 물병(텀블러)
- 안챙겨와도 되는 것 : 샴푸, 린스 등 세면도구, 접시/컵, 등은 타겟 등 마트나 월마트 옆의 달러트리에서 싸게 구할 수 있다. 옷도 많이 챙겨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연말 등을 이용해서 옷을 살 생각이라면 돌아올 때 짐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이다. 필자는 8 월 중순에 가서 12 월 말까지 뉴욕에 머물렀는데 12 월도 그렇게 춥지 않았고 숏패딩으로 날 수 있을 정도의 추위였다. 더불어서 교내에 체육관과 수영장 등이 잘 되어있으니 운동할 때 입을 옷과 수영복도 챙겨오면 유용하다.

8. 여행

필자의 경우 학기 초반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고, fall break (10/9~12) 이후부터 씨티를 비롯해 여기저기로 여행을 다녔다. 뉴욕 시티에서 버스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와 보스턴에 여행을 다녀왔고, 중강 직후에는 롱아일랜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랜드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의 경우 버스를 타고 몬트리올과 퀘벡으로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외에도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시카고

등을 주말이나 주말 낀 연휴를 활용해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종강 후에는 한달 간의 grace period 를 이용해 미국서부(씨애틀, LA, 샌디에고, 라스베가스+ 캐니언 투어)와 시카고를 여행했다.

* 21 년 가을학기 기준 스토니브룩 기숙사에는 1 월 3 일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비자 만료 후에 한달 동안의 Grace Period 가 있고, 여행하는 기간동안 짐은 한국으로 택배를 부치거나 기숙사에 계속 거주하는 친구에게 맡겨야 한다.

- 뉴욕씨티 여행 팁

- LIRR 티켓: 기차역에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한국 카드로 결제 안됨) MTA eTix 라는 앱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학기 초에 10-trip 티켓을 사면 한 장 당 \$2 정도 할인된 금액에 이용할 수 있는데, 열 장으로 양방향 모두 쓸 수 있기 때문에 10trip 으로 사기를 추천한다. 티켓을 사놓고 기차를 탈 때 마다 activate 를 하면 된다.
- 메트로: 뉴욕 시티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때는 역내 키오스크에서 구매, 충전할 수 있는 메트로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메트로카드 없이 현지 debit card 로도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탈 때와 같이 OMNI 라고 쓰여있는 화면에 카드를 가져다 대기만 하면된다. 필자는 apple wallet 에 추가되어있는 chase bank debit 카드로 주로 이용했다.
- 미술관: 뉴욕씨티에는 MoMA, MET 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술관들이 있다. MoMA 의 경우 스토니브룩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 MET 의 경우 뉴욕 주 내 학생증을 제시하면 \$1 부터 원하는 만큼만 내고 입장할 수 있다. 미술관 뿐만 아니라 자연사 박물관 등 여러 곳들에서 학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뉴욕 학생으로 머무르는 동안 마음껏 즐기면 좋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날짜마다, 시간마다, 시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티켓 판매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르다. 추천하는 티켓 판매처는 공식 티켓 판매처, Today Tix (앱), TKTS (앱으로 공연 및 할인을 확인 가능, 타임스퀘어 부스에서 티켓 구매) 등. Today Tix 는 가격이 싼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좌석을 입장 전까지 알 수 없고, TkTS 는 타임스퀘어 빨간 계단 뒤편에서 남아있는 티켓을 조금 싼 가격에 파는 부스다. 이 외에도 Lottery(신청 후 당첨되면 싼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rush ticket (당일 박스오피스 오픈 시간에 가서 남은 자리를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의 방법이 있다. 특정 요일에 학생할인을 제공하는 공연도 간혹 있다.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티켓값이 매우 비싸지므로, 가을학기에 파견된다면 기말 전에 많이 보러 가기를 추천한다. <https://playbill.com/article/broadway-rush-lottery-and-standing-room-only-policies-com-116003> 위와 같은 웹사이트와 구글 검색 등을 활용하면 할인 티켓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자유의 여신상: South Ferry 항구에서 타는 Staten Island Ferry 를 타면 무료로 자유의 여신상을 지나가며 볼 수 있다. 유료 페리만큼 가까이 가지는 않고 멀리서 지나갈 뿐이지만, 티켓도 살 필요 없이 그냥 페리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Staten island 에 ferry 가 도착하고 나면 그대로 내려서 뉴욕으로 향하는 방향의 페리에 탑승하면 된다.

- 나이아가라 폭포 : 나이아가라는 뉴욕 씨티에서 버스를 타고 약 8 시간 거리에 위치한다. 그만큼 뉴욕보다 북쪽에 있고 날씨도 춥다. 나이아가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유명한 것 몇 가지는 겨울에 운행하지 않는다. 10 월 중하순 썸 운행이 끝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겨울이 되기 전에 가기를 추천한다. 필자의 경우 운행이 끝나기 직전인 10 월 말에 가서 폭포 가까이까지 들어가는 페리와 폭포 뒤쪽을 구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둘 다 만족스러웠다. 페리의 경우 신발 안쪽이 질퍽해질만큼 젖따졌기 때문에 슬리퍼나 갈아신을 신발, 튀는 물을 가려줄 모자 등을 챙겨가면 좋다.

[부록] 스토니브룩 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앱

a) 교통

- MTA eTix: LIRR 티켓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앱. 역 키오스크와 달리 한국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 후 열차 탑승 이후에 Ticket Wallet 에 있는 티켓을 Activate 하면 된다.
- LIRR TrainTime: LIRR 시간표와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
- Suffolk Fast Fare: Smith Haven Mall 이나 Port Jefferson 등으로 갈 때 타게 되는 Suffolk County 버스 티켓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앱. 2 장, 10 장 등 번들로 구매 가능. (*주말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학생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버스 탑승 가능)
- Transit: Suffolk County 버스의 시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
- AmTrak: 뉴욕 Penn Station 과 Grand Central Terminal 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기차를 예약할 수 있는 앱.
- Lyft, Uber: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앱. Lyft 가 조금 더 싼 경우가 많지만 퀄리티는 Uber 가 조금 더 좋은 편.
- Hopper: 항공권 예약에 사용할 수 있는 앱. 외에도 각 항공사 앱에 비교적 저렴한 Student Ticket 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

b) 학교 생활

- SBU Transit: 학교 내 셔틀버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 매우 유용!
- Duo Mobile: NetID 로그인 시 본인인증하는 앱
- Stony Brook Campus Card: Wolfie Wallet 과 Dining Dollar 에 남은 돈 확인 및 충전 가능
- RecOnTheGo: Rec 센터 입장 시 필요한 바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 Rec 센터에서 주최하는 클래스 및 행사도 이 앱에서 신청.
- Corq: 교내 동아리와 행사를 확인할 수 있고 RSVP(참석 신청)을 할 수 있는 앱. USG(학생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Corq 앱에서 event pass 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 GET Mobile: 교내 카페/식당의 메뉴를 보고 미리 주문할 수 있는 앱. 이 앱에서 주문 후 픽업하러 가면 된다.
- Guardian: 교내 guardian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앱. 교내에서 혼자 걸을 때 도착 시간을 설정하거나 할 수 있는 듯 한데 필자는 사용해본 적이 없다.
- United Health Care: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보험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음.

- Blackboard: 사이버캠퍼스처럼 수업 공지사항, 자료, 과제, 점수 등을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앱. 점수나 과제, 공지사항 등이 포스팅 되었을 때 핸드폰 알람으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c) 여가 및 기타

- Snapchat: 미국의 SNS 중 하나. 현지 친구들이나 외국인 친구들과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 Groupme: 한국의 단체톡 같은 채팅 앱.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끼리나 동아리, 기숙사 RA 등이 사용하게 될 수 있다.
- Barnes&Nobles College Bookstore: 필자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이 앱에서 할인쿠폰을 받아 교내 서점(Shop Red)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 Yelp: 맛집 리뷰 앱. 뉴욕 시티에 나가거나 여행할 때 유용하다.
- SeatGeek, Today Tix: 브로드웨이 티켓과 미국 프로 스포츠 티켓 등을 보고 구매할 수 있는 앱.
- tkts: 타임스퀘어에 있는 tkts 부스에서 구매 가능한 공연 및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앱.
- Handshake: 이력서를 등록하고 인턴십과 파트타임 공고를 모아볼 수 있는 앱
- Venmo: 한국의 토스와 비슷하게 아이디를 입력해서 송금할 수 있는 앱.